일경언론문화재단 '일경언론상 수상집' 내 광주일보 '아시아 문화원류…' 등 31편 수록

일경언론문화재단(이사장 윤임술)이 발 족 21주년을 맞아 최근 '일경언론상 수상작 품집'을 펴냈다.

수상 작품집에는 지난 1997년 1회부터 2005년 9회까지 수상작과 기사 등이 수록 됐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 2006년 펴낸 1집 에 이어 두 번째 책자다.

이번 작품집에는 2006년 10회 수상작부 터 2015년 광주일보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

아서'가 대상을 받은 19회까지 지난 10년간 모두 31편의 수상작이 담겨 있다. 윤임술 이사장은 "참된 지방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지방 언론 기자들의 작품을 시상해 왔다"며 "수장작 가운데는 중앙언론 도 착안하지 못한 실태와 사건을 보도해 지방언론의 진가를 높인 사 레도 여러 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일경언론문화재단은 일경 김형두 선생의 유족과 후진이 그를 기 러 1996년 출연해 설립됐으며, 우수한 보도를 통해 공을 이룬 현직 지방언론인을 발굴, 시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19회에 걸쳐 총 57건 (신문 35건·방송 22건)을 시상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박주정·김승호·정무남·양호철 대한민국 공무원상









김승호 교장

정무남 주무관

광주 학생 생활지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박주정(53)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장학관)이다.

본인 스스로 사재를 털어 구입한 폐교를 개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7년 넘게 생활하며 인성 지도를 펼쳤다.

박 과장은 최근 이같은 공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박 과장을 비롯, 82명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자'로 최종 선정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박 과장 외에 김승호 목상고 교장, 정무남 광주 시 민생사법경찰과 주무관, 양호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등이 포함됐다. 김 교장은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기부채납을 통한 농어촌 교육 경쟁력 향상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고 정 주무관은 부정 불량식품, 위해의약품 유통 등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활동이 높 은 평가를 받았다. '천일염 박사'로 통하는 양호철 연구사는 전환시 켜 천일염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쓴 점이 인정됐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직장스포츠연맹 마라톤협 회장 이규운씨



'한국마라톤 TV' 이규운 대표(오른쪽)가 최근 '(사)한국직장스포츠 연맹 마라톤협회'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직장스포츠연맹 마라톤협회 제공〉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연극에 담았어요"

연극 '사노라면' 참여하는 13명 시민 배우들

"하나 둘! 하나 둘!"

지난 11일 밤 9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 시 청소년문화의집' 2층 다목적실에서 동작을 맞추기 위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휴일 늦은 시 간에도 지친 기색 없이 땀방울을 흘리며 음악 에 동작을 맞추는 이들은 시민 배우들이다. 9 세부터 5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술회 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연극 '사노라면'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사노라면'은 평화롭던 한 마을에 광산 개발 업자가 나타나면서 겪는 주민들간 불화와 이 후 다시 폐허가 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 화합하 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연극이다.

이 연극은 이세형(여·38) 협동조합 이공 대표 가 지난해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 교육' 에 대해 고민하던 광산구 사회경제과에 '공동 체'가 담긴 연극제작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렇게 시민 배우를 모집했고, 이들은 매주 월·수·목 3시간씩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 1박2 일 합숙까지 하면서 연습했다. 각자 생업과 학 업을 이어가며 없는 시간을 쪼개 연습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연극무 대에 서보겠어'라는 마음에서다.

청소년·주부 등 아마추어 모녀·자매 생애 첫 무대 서기도 25일 광산문화예술회관서 공연

천경희(여·44·광산구 비아동)씨는 대학시절 연극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한때 배우를 꿈꿨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지만 뒤늦게나마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즐겁다.

한편으로는 딸 임현서(비아초 2년)양과 함 께 '모녀지간' 배역을 맡아 어깨가 무겁기도 하 다. 엄마의 연습을 따라왔던 임양이 자신도 연 극에 참여하고 싶다고 졸랐고, 없던 배역까지 만들어 참여하게 됐다. 엄마를 닮아서일까? 우 려와 달리 임양은 뛰어난 재능을 뽐내고 있다.

천씨 모녀처럼 엄마와 연극에서도 모녀로 출연하는 배우들이 또 있다. 김순희(여·44·서 구 동천동)씨와 김도윤(대자중 3년)·지윤(대 자중 2년) 자매다.

"연극에서도 모녀로 출연하니까 확실히 감 정이입이 더 잘됩니다. 우리 모녀가 같이 무대 에 설 수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 아요."(김도윤양)



연극 '사노라면'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고 있는 시민배우 이세형(왼쪽부터) · 박혜성 · 이유미씨

시민 배우들은 연극제작과 연습, 추후 발표 회 정도까지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연습에 매 달리는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레 무대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전세은(정광중 2년)·박주원(영천초 3년)양 은 "600석이라는 무대 규모에 위축되기도 했 다"며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번 기회에 모 든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남다른 열정에 연출을 맡은 정이형 극단 연리지 대표와 문대근·김동희(안무), 박 근태(무대감독), 양원영(조명)씨 등 연극무대 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도 재능기부를 자처

시민배우 대다수가 연극을 배운 경험이 없 는 아마추어로, 영화처럼 카메라 앞에서 NG 걱정 없이 연기하는 것과 달리, 관객 앞에서 연 기를 펼친다는 것에 큰 압박감을 느낀다. 전문 가들의 응원이 힘이 되는 이유다.

"마을공동체의 중요성 알리는 취지의 연극 이지만 배역을 연습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배 우게 됐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3개월간 마 음을 맞추고 뜻을 맞춘 사람들과의 호흡을 좋 게 봐주셨으면 합니다."(이세형씨)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로체' 재도전 … 16일 원정대 발대식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데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 등에 도전 중인 김홍빈(53) 대장이 세계 4위의 고봉 로체(8516m) 등정 재도전〈광주일보 1월 10일자 7면〉에 나선다

김 대장이 이끄는 '희망나눔 2017 한국 로체 원정대'는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시청 중회 의실에서 발대식을 연다.

원정대는 오는 24일(선발대)과 27일(본대) 네팔로 출국해 해발 5400m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한다. 이어 로체 서벽에 4개의 공격 캠프 를 구축한 뒤 4월 하순께 정상 등정을 시도하 는 일정으로 두 달여간의 워정 계획을 짰다.

이번 원정에는 특히 상이군경 출신 나정희 씨, 왼쪽 팔이 없는 이진기씨, 신체 마비 증세 가 있는 정영웅씨 등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한계 극복과 희망 나눔의 의지를 다진다. 이를 위해 대원들은 지난해부터 한라산과

월출산, 무등산 등에서 설상·설벽훈련과 암 벽·야영훈련을 함께 하며 팀워크를 조율해왔 다.

은 1997~2009년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지난 1991년 북미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중 사고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 대장



'희망나눔 2017 한국 로체 원정대' 김홍빈(맨 뒷줄 왼쪽 두번째) 대장과 대원들, 지원팀이 이달 초 월출산에서 암벽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 이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중 9개를 등 정하는 등 불굴의 의지로 시련을 극복해 '희망 전도사'로 불린다.

원정 대상인 로체는 네팔 쿰부히말라야에 위치한 에베레스트 남쪽 봉우리로 김 대장은 2015년 도전에 나섰다가 네팔 대지진 참사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LG U+, 중흥건설이 후원하는 이번 원정대는 장 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강행옥 변호 사가 고문을,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가 단장을 각각 맡았으며 지원팀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 으로 구성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스티븐 호킹 "AI 통제 위한 세계 정부 구성 시급"

최근 과학자들과 AI 관련 테크 업체 CEO(최 고경영자) 등이 AI(artificial intelligenceI) 기반 무기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등 AI 기술에 대한 23개 원칙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적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가 "AI 통제를 위한 세계 정부 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호킹 박사는 최근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의 힘으로 통제 가능한 지금 시점에 AI 기



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비즈니 스 인사이드가 최근 전했 다. /연합뉴스

다문화 이주여성 모국 방문 왕복항공권·체재비 전달 농협광주본부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2일 "지 난 10일 광주비아농협(조합장 박흥식)에서 농 촌결혼이주여성 가족에게 필리핀 모국방문을 위한 가족 왕복항공권과 체재비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피아라귈라 쥴리엣(43)씨는 필리핀에서 시집 온 이민여성으로 2002년 5월 이정범(54)씨와 결혼 후 2남 1녀를 두고 있으 며, 남편과 함께 시설하우스에서 풋고추 등 다 양한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쥴리엣씨는 "가족 모두가 필리핀을 가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면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 고향에 가 있는 것처 럼 좋다"고 말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촌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관내 지역농협과 함께 다문화가족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교육과 한 국문화이해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 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여운환·최숙자씨 삼남 민구(㈜우산 문화원 대표)군 윤부석(금호고속) · 김윤정 씨 장녀 다미양=18일(토) 오후 1시 광주 시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1층 샤넬홀. 062-946-3333.
- ▲김동복(전 농협은행 동광주지점장)・ 문영숙(담양농협 상무)씨 차남 경수군 박 용소・윤정숙씨 장녀 봉경양=18일(토) 오 후 1시 30분 광주시 서구 마륵동 데일리웨 딩컨벤션 1층 라비아홀.
- ▲서정운·김인숙씨 장남 효충군 김용 백(광주일보 보성 주재기자) · 박남임씨 장 녀 **기효**양=19일(일) 오후 1시 광주시 서 구 농성동 메종 드 보네르 1층 보네르홀.
- ▲박종휴·김영숙씨 장남 현수군 구영 완·윤호진씨 장녀 경진양=25일(토) 오후 2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알펜시아웨 딩컨벤션 1층 다이아몬드홀.

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

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 (회장 이정원) 2017년도 제1차 정기이사 회 및 한마음대축제 동문초청 만찬=14 일(화) 오후 6시 30분 알펜시아 웨딩컨벤 션(구 갤러리아 062-369-4900) 문의 유은 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종친회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지원장 이달우) 이화회(회장 이강렬) 월 **례회**=14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 층 062-225-5636.
- ▲경주배씨 광주종친회(회장 배경석) 제39차 정기총회=18일(토) 오전 11시 광 주시 동구 대인동 010-8623-4949.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 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 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 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

- 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 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 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
- 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굿모닝보청기 광주서구점 무료 청력 검사=노인 대상 방문 무료 청력검사, 청 각장애인 상담, 거동 불편시 가정방문 청
- 력검사 문의 062-375-9275.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 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 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

성 대행 010-6392-4585.

- ▲Y-MART 와이마트 주부모니터 모 집=와이마트 1년이상(월 4회 이상) 거래 한 실적 있는 북구 거주 20~40대 여성 고 객 대상 20일까지 모집 마감, 9개월간 와 이마트 강·약점 파악 및 신상품 개발 의견 참여 등 모니터링 활동, 접수 및 자세한 문 의는 www.y-mart.net 또는 1522-4077.
- ▲광주향교(전교 강대욱) 시민예절교 실 무료강좌=3일부터 6월26일까지(120 시간), 월~목 매일 오후 1시10분~3시10 분(2시간) 실천생활예절·지향가정의례· 작명례·성년례·혼인례 등 전통예절 무료 강의. 문의 062-672-7005, 7008.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 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광주유교대학 학생모집=1학년 신입 생 50명 월·수 오후 3시30분~5시30분 교 육, 2학년 편입생 20명 화·목 오후 3시30

분~5시30분 교육, 성별·학력·나이 제한 없이 유교입문학과 유교경전(사서삼경 등) 교육으로 원서접수 28일까지, 문의 광 주유교대학 사무처 062-672-7008.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 호스트=자원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 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 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김현구씨 별세 민배(순천대 평생교육 원장)·한배(호남대 대학원장)씨 부친상 박해천(전 조선대 부총장)씨 빙부상=발 인 14일(화) 조대병원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062 · 227 · 4000

www.mykumho.com

弔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201호 故한금순 님(여/80세) 402호 故김철용 님(남/71세) 子/子婦: 김득수/오정옥, 명수/최승애, 경수/조희매 子/子婦: 김학철/조현미, 주철/남승주 女/壻 : 김향매/이대명 종수/정은선 女/壻 김명진, 유진, 대진 : 김동님/위성돈, 김동순/고영관, 김동숙/이정훈 • 장 지 : 화순 이양 선영 • 연락처 : 227-4381 •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나채식 님(남/68세) 102호 故이덕임 님(여/81세) 子/子婦: 나진성/하지숙 子/子婦: 정찬항/신금자, 찬표/장현심, 찬방/최문영 孫 : 나민준 女/壻 : 나윤경/진대성, 윤희 女/壻 : 정향자/장재오, 향남/이강길, 향숙/부상복 발 인:3월13일 발 인:3월 13일 • 연락처 : 227-4000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징

호장례식

대표이사 구제길